미세먼지 줄이기 2022년까지 340억 투자

전주시, '맑은공기 선도도시' 조성 매년 85억원 투입 대책 추진키로

I oT 기반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도로분집흡입차량 운행 등

전주시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한파와 폭염 같은 재난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는 강력한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오는 2022년까지 매년 85억원씩 총 340억원을 집중 투자해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배출원을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공기 선도도시' 조성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폭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고조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과 같이 재난으로 인식하고 한 층 강화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사업장·공사장 운영 조정 등 법적의무조치사항 이행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자체적으로 9개 강화조치를 추가한 전주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9개 비상저감 강화조치는 △대중교통 운영시간 연장 및 증차 검토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지도점검 △생활공간 주변 공사장 특별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청소차 운영 △영농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영유아·학생·어르신 건강피해저감 △실외작업자 건강피해저감 시행이다.

먼저, 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측정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 기반을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IoT)기반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40개소) △대기오염 측정소 확충(1개소) 등을 추진한다.

비산먼지 분야의 경우, 시는 분진흡입차량 2대를 도입하고,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살수차 2대도 투입하는 등 전주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도로변 비산먼지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

또,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농경지 소각행위 지도점검 강화 등을 비산먼지 저감 관리의 우선순위에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분야의 경우, △공단지역 대기환경 개선 종합대책 수립(5억원)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2억원) △중소사업장 환경개선 지원(2억원)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 저감과 관리를 강화한다.

수송·에너지 분야의 경우, △노후경유차량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613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231대) △노후 화물경유차LPG차량 전환 및 전기화물차 보급(30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200대) △행정·공공기관 차량5부제 시행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 물질을 줄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전북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의무시행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발생 건설공사장 운영 조정·단축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단, 민간부분 차량운행제한은 도 조례 개정 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노면청소차(16대)를 증회 운영하고, 도로분진흡입차량과 살수차도 가동한다. 또, 미세먼지 특별법 미적용 대상인 소규모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를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서 합동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장소장·감리자 교육 △건축허가시 먼지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권고문 배부 △합동점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에 시행된 특별법과 관련해 미세먼지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정치권과 공조해 맑은공기 선도지역 지정·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미세먼지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저감대책이 중요한 만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기반을 토대로 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나갈 것"이라며 "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고형폐기물 소각시설 '함부로 배출 불가'

전주시, 팔복동 산단 환경지킴이 · 모니터단 출범

고형폐기물(SRF)을 연료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등은 앞으로 대기오염물질을 함부로 배출할 수 없게 됐다.

시는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팔복동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지킴이·환경오염 모니터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팔복동 공단지역 인근 만성지구 내 아파트 입주민과 팔복동 주민 등으로 구성된 환경지킴이 6명과 환경오염 모니터단 7명 등 총 13명은 향후 공업지역 사업장의 고형폐기물 소각행위 등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화학물질, 악취 등에 대한 감시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지킴이의 경우, 민·관 합동으로 사업장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또한, 환경오염 모니터단의 경우, 공업지역의 대기오염와 악취 등 오염발생 진행사항과 거주지 또는 공업지역 주변에서 공장굴뚝 매연발생 여부, 악취 발생여부, 대기오염발생 시기와 위치 등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매월 대기질 개선 모니터링 추진성과 분석도 맡게 된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올해 첫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 개최

최신현 전주시 총괄조경가가 전주시가 나아가야할 정원도시 조성 방향을 제시했다.

전주시는 18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1차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아카데미에서 전주시 총괄조경가인 최신현 대표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를 위한 작은 생각'을 주제로 강의했다.

최 대표는 본인이 설계했던 서서울호수공원과 북서울꿈의 숲, 무안 백련지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의 삶과 연결된 디자인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강연했다.

최 대표는 "작년에 천만그루 정원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 전주에 방문했는데 참 매력적인 도시라는 생각을 했다"며, "전주시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를 통해 도시 안에서 시민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외지에서 찾고 싶어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공원녹지에 가치와 디자인을 더해 궁극적으로는 정원산업을 기반으로 한 생동감 있는 정원도시 전주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효철 기자

18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2019년 상반기 시민 모니터단' 150명에 대한 위촉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전주시 제공〉

시내버스 이용만족도, 시민이 직접 평가

전주시, 상반기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위촉

전주시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평가를 통해 버스타기 편리한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시는 18일 '2019년 상반기 시민모니터단 위촉식 및 교육'을 열고 최근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된 시민 모니터단 15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매월 7회 이상 전주시내버스를 이용하는 17세 이상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단은 오는 6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직접 시내버스에 탑승해 운행실태, 친절도, 차량관리 등 3개 분야·10개 항목에 대한 관찰 및 질의를 통해 운행만족도 평가를 하게 된다.

이들은 또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며 무정차와 급출발, 난폭운전, 불친절, 시설물 훼손 등 미흡한 사항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제보하게 된다. 시는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의 제보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해당회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반대로, 친절기사를 발견할 경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친절사연을 추천·제보하면 향후 친절기사 선정에 반영하는 등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시는 공모 접수된 262명의 시민 중 선착순 150명을 상반기 시민모니터단으로 선발했다. /송효철 기자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 인턴십 설명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 이하 재단)이 2019년 새롭게 추진하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문화예술교육사업 인턴십 지원사업'의 설명회를 연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20일 오후 2시 전주 팔복예술공장 2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되며 올해 신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절차방법과 선정기준을 안내하고 지원 관련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만 3~5세 유아들에게 누리과정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역량 있는 도내 문화시설이며 2개소 내외로 선정해 기획, 운영비를 지원한다.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은 청년 문화예술교육사(만 39세 미만, 자격증 취득 3년 이하)를 문화시설에 배치해 문화예술교육사로서 기획능력과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에게는 문화예술 향유 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재단이 도내 문화기반시설 8개소를 선정해 문화예술교육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모집공고는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15일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완주서 플래카드 훔친 일당 검거

플래카드 200매를 차량에 싣고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18일 특수절도 혐의로 A모씨(61)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일 오후 1시경 완주군 삼례읍 한 건물 앞에서 시가 200만원 상당의 플래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분석 등을 통해 지난 15일 오후 7시경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농사할 때 쓰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

군산서 핸드백 훔친 40대 덜미

관광객이 놓아둔 핸드백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8일 절도 혐의로 A모씨(41)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12시 50분경 관광을 하러 온 B모씨(26)의 핸드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지난 17일 오후 7시경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